

전교조·대학총장·교육행정가...출신도 공약도 다양

시·도 교육감 후보 7명

교육감은 학부모뿐 아니라 유권자 전체의 한표 환표가 모여 선출되는 지역 교육계 수장이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 방향이 '학업성취도'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학생 개인의 창의력 신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각종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느냐,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통제를 강화하느냐' 여부가 교육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광주교육감 후보=25일 3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국(68)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출신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2010년 교육감에 오른 뒤 줄곧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는 구호 아래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생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관련 교육감 체제의 '실력 광주'보다는 '민주시민 육성과 학생 창의력 신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업적은 '촌지 관행 타파', '무상급식 도입' 등이 거론된다. 장 교육감은 이날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입시경쟁교육을 혁파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59) 예비후보는 광주교대 총장 출신이다. 그는 "창의성 신장만큼 성적도

장휘국 "입시경쟁교육 혁파"

이정선 "성적도 중요하다"

정희곤 "아이들 엄마처럼..."

최영태 "광주교육회의 설립"

고석규 "전남형 교육모델 개발"

장석웅 "교육청 간부 여성 50%"

오인성 "현장에 답이 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 학생들의 서울대 등록자 수가 50% 감소했다",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에서 2011년 이후 국어·영어·수학 '기초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발언도 마다하지 않는다. "교육청에 쏟았던 교육권력을 시민과 교사에게 내어주겠다"는 그의 발언에 미뤄볼 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곤(65) 예비후보는 전교조 지부장과 광주시의원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다. 지난 3월 출마선언 자리에서는 "다양한 끼와 재주를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북돋아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다. 우리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다. 앞서는 가

이도 뒤쳐진 아이도 모두 살뜰히 보살피겠다"고 밝힌바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에는 "통일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교육을 준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영태(64) 예비후보는 현직 전남대 사학과 교수로 광주시민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참여형 지식인으로 분류된다. 최근까지 국방부 5·18특조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규명에 힘써왔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6개월 이내 교육감 직속으로 '광주교육회의'를 설립해 교육감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결정이나 영향으로 광주교육의 주요 방향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의 대표적 문제점은 실력 광주의 전통을 허물기만 했을 뿐 새로운 좌표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다" 등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광주교육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전남교육감 후보=고석규(61) 예비후보는 목포대 총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과 끈끈한 인물을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장을 최근까지 맡았다.

고 예비후보는 전남교육의 3대 비전으로 ▲전남 교육예산 5조원 확대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남형 교육모델' 개발, 운영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지방정부 시대를 대비한 '안전과 자율' 책임으로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시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장석웅(63) 예비후보는 중학교 역사교사 출신이다. ▲'교육청 간부 50% 이상 여성 할당제'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책임)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두 후보만 놓고 따지자면 고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장 후보는 쇄신을 각각 강조하는 분위기다.

나주교육장을 지낸 오인성(62) 예비후보는 '살아 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전남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이후 매일같이 보성·목포·순천 등 전남 곳곳의 교육현장을 돌며 맞춤형 공약을 발굴, 소개하고 있다. 미세먼지, 석면, 지진 등 안전 위협요소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원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 수업의 질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많다. 전남에서 초등학교와 교육장을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미지' 아닌 '아우라'를 보고 뽑자



(222) 아우라

우리가 흔히 어떤 대상을 향해 '아우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아우라'는 '도무지 함부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할 때가 많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는 신비한 느낌, 그를 대했을 때 느껴지는 감동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아우라(Aura)의 미학적 개념은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1892~1940)의 저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유래한다. 벤야민은 작품에 대한 원본성, 진품성, 일회성이 아우라를 느끼게 하며 사진이나 영화 같은 복제 기술이 아우라를 파괴한다고 일갈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제기술의 발달로 기존 예술작품의 원작이 지닌 유일 무이한 일회성은 극복했지만, 원작에 감도는 '아우라'는 사라지게 했기 때문이다.

많은 미 학자들은 아우라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작이 수없이 복제돼 언제 어디서라도 볼 수 있게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꼽는다. 20세기 미술사의 아이콘이자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셀 뒤샹(1887~1968)은 모나리자의 얼굴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려 넣은 작품 'L.H.O.O.Q.'(1919년 작)를 발표



뒤샹 작 'L.H.O.O.Q.'

하면서 아름다움을 반격하는 전위적 도발을 감행했다.

뒤샹은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던 예술작품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작품제목에서 불어 발음으로 '그녀의 엉덩이가 뜨겁다'는 뜻을 연상하게 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덕분에 모나리지만큼 가장 많이 패러디되고 가장 자주 그려지는 이미지가면서도 루브르미술관에서 진품을 직접 보았다는 것만으로 자량이 되는 작품은 흔치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방정부의 살림을 맡을 일꾼들을 엄선해야하는 시이다. 우리 가 뽑아야 할 진품 인재의 '아우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이미지만 복제하지 않고 진정성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광주비엔날레장학기획실장·미술사박사>



장휘국 이정선 정희곤 최영태 고석규 장석웅 오인성

민주당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 경선으로 뽑는다

27~28일 권리당원 100%, 무안영암 여론조사 100% 경선

지역마다 경선률 제각각... "특정후보 밀어주기" 공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광주 서구갑 국회 의원 재선거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선률을 채택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다른 경선률을 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자를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 의무공천을 주장해 박해자 전 의원에 대한 전락공천을 고려했던 게 사실이지만 논의 끝에 경선으로 결정됐다"며 "27일부터 이틀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갑은 박 전 의원과 송갑석 노무현 재단 광주 운영위원 등 2명을 상대로 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또 전남 결과 발표가 보류된 영암·무안·신안지역 재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경선률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경선률은 '권리당원 조사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임에도 영암·무안·신안의 경우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 광주 서구갑은 권리당원 100% 경선을 각각 채택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문제인 정부 청와대 행정

관' 직함을 쓰는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을, 그리고 광주 서구갑은 지역위원장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방법을 각각 채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현지 경찰과 선관위의 무협의 판단에도 중앙당이 특정 후보의 주장만 들어 경선 발표를 보류하는 편파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민중당원은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경선 원칙을 제멋대로 바꾼다면 역풍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여행은 우리맘대로

하나투어

단체맞춤여행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업계최초!!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시행!

인증서는 고객과 하나투어의 약속입니다. '맞춤여행 인증제'로 여행의 신뢰를 더하세요.

- 안전성**
국내 유일 전세계 23개 네트워크로 안전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 신뢰성**
인증서로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합니다.
- 전문성**
하나투어만의 노하우로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방문 또는 1577-1233 으로 연락주세요.